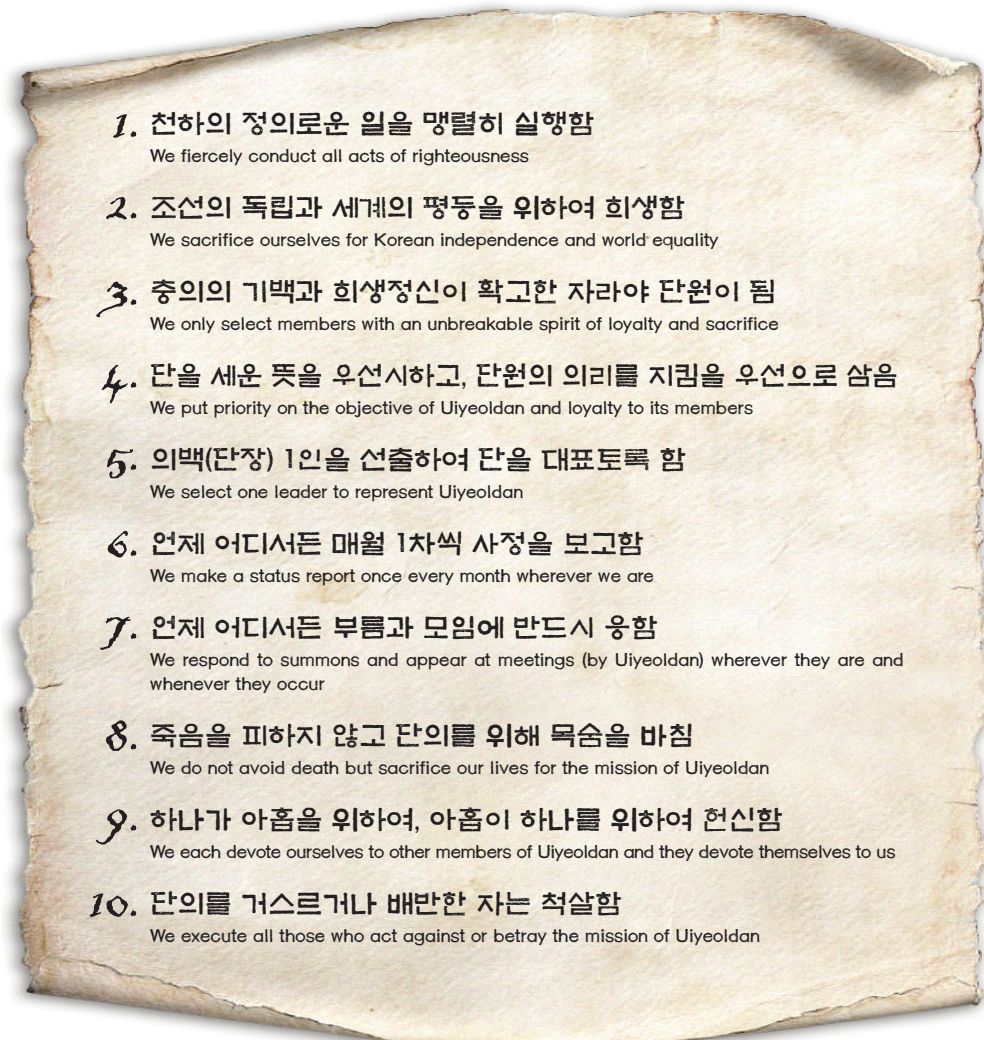


1919년 11월 10일,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지린성에 모여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통치 기반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의열투쟁을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정하고, 1920년대에 걸쳐 수차례 의거를 실행하였다. 의열단의 성격은 다음의 공약 10조에 잘 나타나있다.

On November 10, 1919, independence activists who defected overseas gathered in Jilin Province, Manchuria, and established Uiyeldan, the "Heroic Corps." In order to effectively strike at the foundation of Japanese colonial rule, Uiyeldan targeted high-ranking Japanese officials and government offices in their fight for independence.



대한의

청년들

정의를

맹렬히

실행하다



대한의 청년들, 정의를 맹렬히 실행하다!

The Young Men of Korea Fiercely Conducted Acts of Righteousness!

일제강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졌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정의를 맹렬히 실행’하기 위해 만든 단체 의열단의 단원들입니다. 의열단은 일제의 식민통치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1920년대에만 10여 차례 넘게 의거를 전개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 대해 기억하고, 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were young Koreans who threw their lives away for the nation's liberation, without hesitation. Uiyeldan or the "Heroic Corps." the name of their organization, strove to recover their country, stolen by Japan, through heroic action against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and figures. Through this exhibitio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ntends to remember the people in Uiyeldan who devoted themselves to the nation and cause people to ponder the messages they sent to us, living in today's Republic of Korea.

<대한의 청년들, 정의를 맹렬히 실행하다!> 는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박재혁 Park Jae-hyeok

1895~1921

1920년 9월 14일 부산경찰서 의거

1920년 상하이에서 의열단에 가입한 박재혁은 부산경찰서를 의거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귀국하였다. 하시모토 부산경찰서장과의 독대를 요청해, 서장실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실행했다. 의열단의 의거 중 처음으로 성공한 사건이었다. 박재혁은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옥중에서 단식하여 1921년 5월 11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Park Jae-hyeok, who joined Uiyeoldan in Shanghai in 1920, bombed the chief's office at Busan Police Station the same year. He was sentenced to death in court, but died in Daegu Prison on May 11, 1921 after a hunger strike. He was only 27.



김익상 Kim Ik-sang

1895~미상

1921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 의거

조선총독부 의거는 1920년 9월의 박재혁 부산경찰서 의거, 12월의 최수봉 밀양경찰서 의거에 이어 일제의 심장부를 저격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김익상은 전기수리공 차림으로 남산 왜성대의 조선총독부에 잠입해 폭탄을 던지고 혼란한 틈을 타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다음 해인 1922년 3월 상하이 황푸탄에서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하는 의거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Kim Ik-sang, dressed as an electrical repairman, infiltrat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building at Namsan Waeseongdae, threw bombs, and left the scene during the ensuing confusion in 1921. The following March, he was caught while attempting to assassinate Japanese army general Tanaka Giichi (田中義一) in the Waitan area in Shanghai, China.

김상옥 Kim Sang-ok

1889~1923

1923년 종로경찰서 의거

김상옥은 1923년 1월 17일 일본 도쿄 방문을 위해 남대문역을 이용하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기 위해 인근 후암동에 은신하던 중, 1월 12일 일어난 종로경찰서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일본 경찰에 포위당했다. 총격전 끝에 추격을 따돌리고 효제동으로 몸을 피하였으나, 22일 오전 7시부터 포위망을 좁힌 일본 경찰과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이다 34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

On January 17, 1923, while hiding in Huam-dong to kill Saito Makoto (齋藤實),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who was scheduled to use Namdaemun Station, near Huam-dong, to visit Tokyo, Japan, Kim Sang-ok was identified as the perpetrator of the attack against Jongno Police Station on January 12, and was surrounded by Japanese police. After three hours of fighting on the run with the police, Kim died. He was 34.



김지섭 Kim Ji-seop

1884~1928



1924년 1월 5일 일본 도쿄 궁성 이종교 의거

김지섭은 1923년 9월 일본에서 우리 동포 6천 여 명이 희생된 관동대학살이 일어나자 의거를 위해 일본에 입국하였다. 도쿄 궁성 앞 이종교에 3개의 폭탄을 던졌으나 모두 불발하여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적의 심장부에서 벌인 의거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이었다.

Kim Ji-seop entered Japan to avenge the massacre of some 6,000 innocent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September 1923. He threw three bombs at Nijubashi Bridge in front of Tokyo's Imperial Palace, but none went off. He failed to kill his targets, but since the attack occurred at the heart of the enemy's homeland, his heroic act horrified the Japanese imperialists.

나석주 Na Seok-ju

1892~1926



1926년 12월 28일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의거

나석주는 1926년 의열단에 가입하여 국내로 잠입하였고, 12월 28일 일제의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기관인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실행하였다. 의거 후 일본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권총으로 자결 순국하였다.

Na Seok-ju joined Uiyeoldan in 1926, infiltrated Korea, and on December 28, threw bombs at the Joseon Siksang Bank and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two representative colonial exploitation agencies of Imperial Japan. After a heated chase with the Japanese police, he shot himself to avoid falling into Japanese hands.

『조선혁명선언』 1923

Manifesto of the Korean Revolution

신채호 Shin Chae-ho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항일투쟁의 노선을 적은 선언서로 신채호가 작성하였다. 식민지의 현실을 고발하고, 기존 독립운동론을 비판하며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했다. 이상적인 조선 건설을 위해 일제 식민통치 뿐 아니라 특권계급과 사회적 불평등의 타파를 주장하였다.

A manifesto, written by independence activist Shin Chae-ho, to describe the ideals of Uiyeoldan in the struggle for independence and its course of action in the fight against Japan. It discloses the reality of the colony, criticizes the existing ideals and methods in the independence efforts, and emphasizes a direct revolution by the public.

